

‘친환경 에너지’ 버려진다

정부, 태양광 전력수매 제한...생산량의 70% 사장될 판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남에서도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잇따르고 있으나 민간의 에너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지원책이 극히 제한돼 있어 내년부터는 남야는 태양광 발전 전기가 버려질 판이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남에서는 나주와 순천, 강진, 고흥 등 14개 시·군에서 49개 태양광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이들 발전소는 시간당 총 12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생산된 전력을 1kW당 677.38원씩에 정부에 판매하고 있다.

이 같은 판매금액은 정부가 재생에

너지 생산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발전차액 지원’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 시장가격인 1kW당 70~80원에 비해 10배 가량 낮은 것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정부의 발전차액 지원을 겨냥한 태양광발전소 건립 희망 사업자가 급증하면서 앞으로 건설되는 발전소 가운데 상당수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태양광발전소의 과도한 보급을 억제하고, 지원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전체 태양광발전소의 총 전력생산 용량이 100MW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가동 이후 15년간까지도 지원대상과 시기

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은 주파수가 불안정해 산업용으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

하지만, 최근 규약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전국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규모는 이미 286MW를 웃돈다. 일조량이 많아 태양광발전의 최적지로 꼽히는 전남에서도 227개 사업자가 모두 176MW의 설비용량을 갖춘 태양광발전소 설립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다.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기존에 허가받은 태양광발전소 중 상당수가 발전차액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단일사업으로는 전국 최대규모인 강원 영월의 50MW급 태양광발전소가 사실상 승인됨으로써, 발전차액지원 용량의 3배 이상이 이미 초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립·가동되는 태양광발전소 중 상당수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국 태양광 발전소의 총 발전설비용량이 100MW를 넘어서면, 그 이후 가동되는 태양광 발전소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지원책이 확대되지 않으면 전남에서도 사업허가를 받아놓은 발전소 가운데 상당수가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정부 부처 대폭 줄인다

MB측, 교육부 권한 축소...환경+건교, 노동+복지+여성부 통합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은 기존의 정부부처를 가능별로 전면 재편하고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적으로는 작은 정부 기조 하에서 현행 18개 부처수를 대폭 줄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형 대(大)부처주의’가 구현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교육부의 경우 ‘개혁대상 1호’로서 대부분의 규제 기능은 각 시·도 교육청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관하고 슬림화한 교육지원 기능은 과학기술부와 통합하는 발전적 해체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체 국가 예산을 10% 줄여 20조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 교육·복지

분야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이 당선자의 평소 구상과도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우선적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교육부의 경우 초·중교육에 대한 규제 기능은 일선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가고 대학에 관한 규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자율적으로 담당토록 하며, 나머지 지원 기능은 과학기술부와 통합해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과기부의 산업정책 관련 기능은 다시 산업자원부와 기능적으로 재편하고 노동부, 복지부, 여성가족부를 하나의 부처로 통일화하는 방안 및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통합,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별 재조정 및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의 단일화 등도 거론되고 있다.

방만한 경영으로 꾸준히 도마위에 올라온 공기업은 ‘지분은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은 민간에게 맡긴다’는 싱가포르식 국영투자사 운영으로 가락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필뉴스



무안공항이 된다

23일 무안국제공항 개항을 기념해 열린 ‘2007 하늘백련 마라톤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차가운 겨울 바람을 헤치며 힘차게 달리고 있다. 무안군이 주최한 이날 마라톤에는 2천여명의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가, 무안공항에서 무안~광주 고속도로 무안나들목까지 20km구간을 달렸다. /무안=최현배기자 choi@

광주 산업생산 전국 최하위

김우중·박지원·한화갑 연말 특별사면·복권

작년 19조494억...1인당 GRDP 울산의 ‘3분의 1’

지난해 광주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6.7% 늘었지만 지역별 총생산액과 1인당 GRDP 규모는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지난해 실질 GRDP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면서 타 시·도에 비해 경제규모의 성장 속도가 더딘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광주·전남통계청이 내놓은 ‘2006년 광주·전남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GRDP는 19조4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 2005년(17조8천538억원)에 비해 6.7% 증가했다.

하지만 광주는 전반적인 산업생산 규모면에서는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총생산액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7조5천961억원)를 제외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또 지난해 광주의 1인당GRDP는 1천319만9천원으로, 대구(1천122만1천원)를 제외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1천772만7천원)은 물론, 울산(3천836만7천원)의 3분의 1수준이다.

특히 광주는 2000년을 기준으로 한 실질GRDP 성장속도가 타 시·도에 비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의 실질GRDP성장률은 3.6%로, 전국 평균(5.1%)을 밑도는 한편 1년 전인 2005년 성장률(5.4%)에도 못미쳤다. 전남도 지난해 실질GRDP성장률이 2.8%에 그쳐 대구(1.8%)와 제주(1.8%) 등과 함께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다만 전남은 지난해 1인당GRDP가 2천266만3천원에 달하면서 울산, 충남 등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높았다. 또 GRDP도 41조4천563억원에 달하면서 2005년(40조8천728억원)보다 1.4% 증가했다. 전남의 GRDP 규모가 큰 것은 여천산단, 광양제철 등 대규모 산단의 산업생산 효과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광주는 서비스업이 5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제조업(27.7%), 건설업(10.1%), 농림어업(1.2%) 등의 순이었다. 전남의 경우 ▲서비스업(39.9%) ▲제조업(33.2%) ▲건설업(11.2%) ▲농림어업(10.5%) 등이었다. /최정호기자 choice@

▲지역내총생산(GRDP)=생산, 소비,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추계한 해당 지역의 부가가치. 시·도별 종합경제지표로 활용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빠르면 이번 주 내에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 연말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김우중 전 대구를 회장 등 경제계 인사는 물론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정일 전 의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참여정부의 마지막 특사가 될 이번 사면의 기준과 폭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김 전 회장을 비롯한 재계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특사 규모는 최소한 100명 이상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우림재단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ur.ac.kr
진남과학대학
www.jinam.ac.kr

국내·국제 10대 뉴스 ▶6면 새해 달라지는 것들 ▶14~15면

www.trakorea.co.kr

무안 취항기념 특가 (12/20, 12/23)

대만/야류/화련 3박4일	대만/심천/홍콩 4박5일
499,000 원	799,000 원

대만/야류/화련 4일	599,000 원
대만/심천/홍콩 5일	889,000 원
대만-일월담-화련 5일	679,000 원

[광주저렴] Tel. 062-228-0097 (유지) : 112(경찰) 112(소방) 119(구급) 112(경찰) 112(소방) 119(구급)